



리아호나 2010

지역 소식

“나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모세서 2:27~28)

후기 성도 다자녀 가정들 찾아서 ②

우리, 가족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 땅의 후기 성도 다자녀 가정들 찾아 취재하고 그 기사를 연재한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최소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이들 후기 성도 가정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별종 취급을, 또 때로는 동정어린 시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하다. 가정에는 사랑이 넘친다. 그 비결을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다.

바로 ‘복음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다정, 김영철 형제, 다인, 다진, 광혁, 광민, 정은 자매

가장 귀한 선물-김영철 형제 가족

김영철 형제와 정은 자매 가족의 가훈은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

의 ‘인자무적’이다. 늘 어질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행복한 가족에게도, 항상 순탄한 생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첫 아이의 유산은 이들 부부에게 ‘하늘이 노래지느’ 경험이었다. 게다가 둘째까지 유산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매달릴 곳은 주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물론이고 와드 회원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 정은 자매의 태중에 깃든 새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다. 김영철 형제 부부에게 그 아이는 간증과도 같았다. 그 후 세 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렵게 부모와 만난 그 아이는 주님의 곁으로 돌아갔다. 8년이라는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김영철 형제와 정은 자매에게 미어지는 슬픔 말고도 기쁨

과 행복을 선사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도.

큰 아이를 잃은 후 다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바로 다진과 다인이다. 슬픔을 잊게 해 준 두 아이를 보며 김영철 형제 부부는 리하이가 광야에서 얻은 야곱과 요셉을 떠올린다. 두 부부에게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두 사람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주님의 속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녀를 가질 때마다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옛말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니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 벅찬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서로 나누고 돕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김영철 형제의 간증은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하다. “자녀는 부모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 커짐을 압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행복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늘 한결 같기를 기도합니다.” ■

자녀들은 우리의 교사-김태완 형제 가족

자녀가 많은 집의 부모들은 때론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다섯 아이의 엄마인 이미정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첫째 언약이부터 넷째 권영이까지 4명이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해, 이 자매는 운동회 등의 학교 행사가 열릴 때마다 학년이 다른 4명의 아이들을 각각 찾아다니며 행사에 참여했다. 정신없고 바쁜 순간들이었지만, 그 순간들마저 소중할 정도로 이미정 자매와 김태완 형제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김태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 면에서 자녀 양육이 쉽지는 않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교사라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완 형제 부부는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로 비춰지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고 용돈을 받아 십일조를 내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



등을 가르친다.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다섯 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큰 아들부터 집안의 웃음을 담당하는 막내까지 모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다. 막내 주영이는 지금도 엄마가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면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 배를 만지며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의 동생에게 안부를 전한다.

건강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값지며 소중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김태완 형제와 이미정

자매 부부. 아이가 많아 택시 잡기가 힘들어도, 지식 많은 게 부자라는 주위 사람들의 농담 섞인 우스갯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자녀가 많아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도 대신해 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다복한 우리 집-이병환 형제 가족

이병환 형제 부부는 요즘도 시장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다. 지난 2004년에 광주 북구의 다복왕



으로 선발되어 TV 출연을 한 덕분이다. 요즘처럼 저출산이 문제인 시기에 자녀 여섯을 가졌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자녀들의 이름도 특이하다. 한나, 엘마, 사라, 요셉, 바울, 에스더. 모두 경전에 나오는 이름이다. 특이한 것은 이쁜만이 아니다. 가족 모두 담당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병환 형제는 세탁을, 김미숙 자매는 반찬 만들기를 담당한다. 그리고 한나는 2층 청소, 사라는 1층 청소, 요셉은 상차리기, 바울은 밥하기, 막내 에스더는 빨래 개기를 담당한다. 마치 잘 조직된 회사처럼 역할 분담이 확실한 이병환 형제 가족은 돈대신 행복과 즐거움을 보수로 받는다. 이병환 형제 가족은 늘 시골벽적이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한창 자랄 나이의 다섯 자녀들이 나눠먹느라 음식은 늘 부족하지만 만날 터트리는 웃음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른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깊다. 늘 선행상을 타오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병환 형제는 그 이유가 자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저는 자녀가 많을수록 축복을 받으리라 고 믿습니다.”

아내인 김미숙 자매는 이렇게 간증한다. “늦게 개종하여 11년 차이의 귀환 선교사와 결혼할 때부터 주위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 많이 갖게 되니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자녀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수 있음에

저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하자-이우영 형제 가족

이우영 형제 가족은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이우영 형제의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산다. 게다가 자녀가 여섯이니 한 집에 11명이 사는 것이다. 이우영 형제의 집에는 그 많은 가족만큼이나 매일 사랑과 행복이 넘친다. 사실 아내인 김용임 자매의 처음 목표는 자녀 셋이었다. 하지만 이우영 형제가 아들 셋을 원했다. 결국 아들, 딸, 아들, 딸 번갈아가며 넷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다섯째를 임신했다. 다섯째는 딸이었고, 김용임 자매의 말을 빌리자면 “고생한 것도 세월이 가면 잊게 되는지” 3년 후 이우영 형제의 소원대로 막내 아들을 얻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이우영 형제 가족을 부러워한다. 기르기는 힘들지만 잘 낳았다고 격려를 해 준다.

이우영 형제와 김용임 자매는 자녀란 곧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우영 형제는 이렇게 간증한다.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데려오는 일에 더욱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도우며 자랐다. 특히 시골에서 농사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총동원되어 일을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서로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자녀들은 서로의 모범을 보면서 자란다. 첫째인 이선기 형제와 둘째인 이자현 자매, 그리고 셋째인 이원기 형제까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고 밋의 동생들은 그런 모범을 보면서 자신들도 선교 사업의 꿈을 꾸다. 형이나 누나, 혹은 오빠들도 동생의 모범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동생들의 순수한 간증과 신앙에 감동하는 것이다. 이우영 형제는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며 이런 소망을 갖는다. “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간증은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





6. 교회 자료의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경전과 찬송가의 번역과 출판, 그리고 성도의 벗의 출판 등 교회 자료의 번역과 출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경전과 찬송가의 번역 및 출판

몰몬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1962년 3월 8일이다. 이때는 제3니파이만 번역되었다. 흥병식 형제를 통해 번역된 몰몬경 제3니파이는 동아출판사에서 포켓용으로 총 2000부가 출판되었다. 교회의 종석인 몰몬경은 선교 사업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복음 공부에도 꼭 필요한 경전이였다. 교회의 초기에는 영어에 능통한 회원들이 영어 몰몬경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경전의 내용이 전해졌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몰몬경 번역의 필요성은 점점 절실해졌다. 1962년 당시의 교회 회원들은 번역되어 나온 제3니파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비록 일부뿐이었지만 몰몬경 속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모국어로 된 몰몬경을 읽고 싶다는 회원들의 바람은 더 커졌다.

1965년 3월 31일, 그동안 몇 차례나 진행되고 좌초되기를 반복했던 몰몬경 번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번역은 한인상 형제가 맡았다. 한 형제는 번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당시 한인상 형제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 외에도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잊고 오직 몰몬경 번역에만 몰두했다.

1965년 8월 28일 드디어 몰몬경 번역이 끝났다. 번역된 몰몬경은 보진재라는 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 번역 완료 후에도 2년이 흐른 1967년이였다. 초판으로 인쇄한 3000부는 3년 만에 매진되었다. 한국어 몰몬경을 갖게 된 회원들의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교회 복음의 기초인 몰몬경이 번역되면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 출판 한 해 뒤인 1968년 7월에 역시 보진재에서 인쇄되었다. 교리와 성약의 번역은 정대판 형제가 담당했다. 한국어 교리와 성약은 당시의 선지자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도 전달되었다. 교리와 성약을 받은 맥케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찬송가는 경전보다 조금 앞선 1963년에 출판되었다. 음악이 회원들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1950년대부터 찬송가를 번역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찬송가의 번역과

출판도 정대판 형제가 담당했다. 정 형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영어로 찬송을 부르자니 음악도 어렵지만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이 더 어려워 애를 먹었고 영성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찬송을 불러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몇몇 형제들이 해결한 것입니다. 악보집 제작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형제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사가 음률에 맞지 않아 이상한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을 얼마나 잘 생략하는가가 찬송가 번역의 요체였던 것입니다. 인쇄 방식은 가장 원시적인 등사판을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찬송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1963년 총 130곡이 담긴 채로 출판되었다. 그 후 1970년 7월 1일에 새로운 찬송가가 출판되었는데, 이 찬송가에는 애국가가 삽입되었다.

성도의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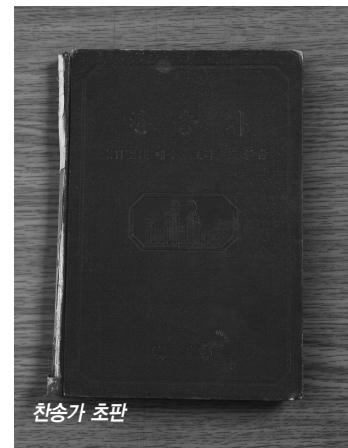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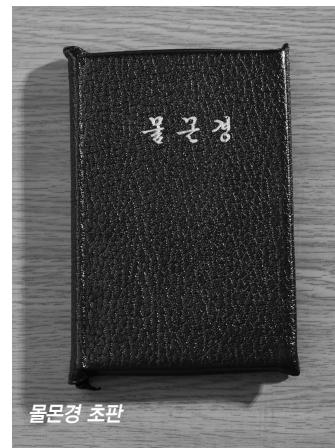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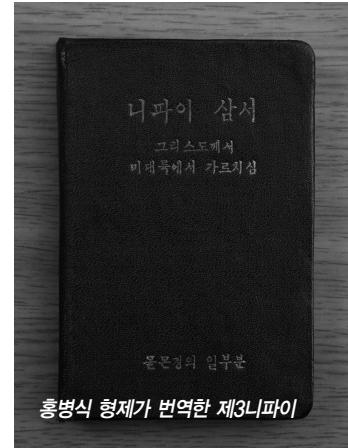
성도의 벗은 1959년 젊은 회원들의 문예 활동을 장려하는 문예지 형태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김호직 형제의 서거 이후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고, 5년 여가 흐른 1964년 9월에 새로운 교회 잡지로

번역과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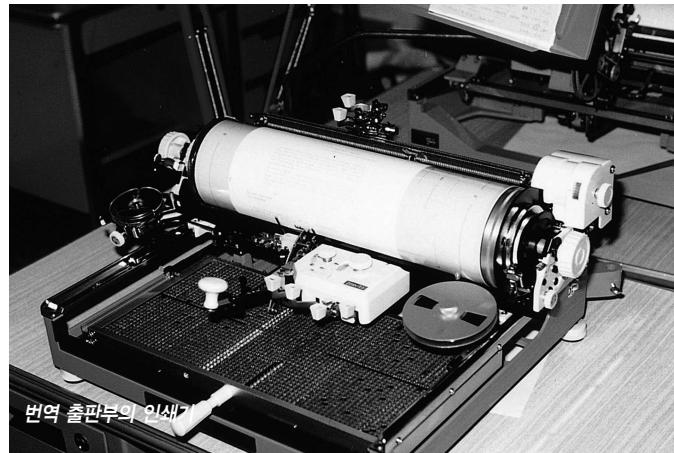
개편되어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 성도의 빛에는 한국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이 담겼다. 처음에는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대소사까지 모두 소개되었다. 성도의 빛을 통해 소개된 개인의 간증과 말씀 등은 당시의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도의 빛을 통해 복음의 원리 등도 가르칠 수 있었다. 1968년 3월호부터 성도의 빛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에서 선별한 기사를 싣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 감리 감독단이 주관하는 번역 출판 위원회에서 선택한 원고를 싣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성도들은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성도의 빛은 1999년 1월호부터 '리아호냐'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회원들의 방향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 자료들의 출판에는 한국 번역 출판부가 큰 역할을 했다. 1963년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건물에서 전도용 소책자와 회원을 위한 교재 번역 등의 업무로 시작된 한국 번역 출판부는 1968년 3월 18일 교회 본부 감리 감독단이 승인한 공식 조직으로 출범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당시 강영호 국무총리 부부에게 불문경을 전달하는 팔머 회장



번역 출판부의 인쇄기



변화하는 세대들

SMYC(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에 있었던 SMYC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으며 청소년과 고문 모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 SMYC 참석자들이 자신이 겪은 내면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SMYC를 통해 얻은 간증을 바탕으로 선교 사업을 택한 세 명의 젊은이들을 소개한다.



선교 사업을 우선으로

2010 SMYC는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였다. 고3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청소년 대회였고 또한 전국에 있는

포레들로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누구나 고3이면 대학진학, 군 입대, 선교 사업 등 장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나는 이번 SMYC를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해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SMYC에 참석한 후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대로 군 입대나 대학 진학보다도 선교 사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나는 4년 동안 열심히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처음엔 같이 하는 친구나 동생이 없어서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했다. 그때 많이 즐겼다. 고1 때부터 교회에서 했는데 여전히 많이 즐겼던 것 같다. 하지만 고2와 고3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동생들이랑 열심히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올해 무사히 세미나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이 컸다. 세미나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또한 최근 제주 지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들이 일요일 성찬식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몇몇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통하여 나는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부모님들이 교회 회원이라 어릴 때부터 선교 사업에 대해 들었고, 선교 사업을 위해 용돈이 생길 때 마다 저금을 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금을 더 모았다. 선교 사업 출발을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교사 기금의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선교 사업은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리라 확신한다. ■

이승용 형제, 제주 지방부



나는 알고 있다

울 초, 나는 이 해가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만 21세가 되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막연하게 꿈꿔왔던 선교 사업이 현실로 다가왔고 올해는 선교 사업 준비에 집중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학업 등의 문제로 선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제 나갈 것인가에 관해 사소한 고민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SMYC에 조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SMYC를 통해서 선교 사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계시를 얻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준비 모임부터 본 대회, 그리고 후속 모임까지 이어진 SMYC를 통해 나는 사소한 고민들을 정리하고 선교 사업을 우선으로 선택해야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주저 말고 선교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뿐만 아니라 SMYC를 통해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었고, 선교사가 되어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게 되었다.

5박 6일의 SMYC 동안 매 순간 그곳에 함께했던 영은 내가 선교사가 되어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 해 주었다. 아름다운 음악, 매일 나누었던 경전의 말씀과 청소년들의 강한 간증, 사랑과 봉사. SMYC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드러내 주었다. 이 SMYC가 경전에서 말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기이한 일'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특히 천 여명의 청소년들이 부르는 SMYC 메들리가 울려 퍼질 때 내 마음 속에는 숲속에서 기도하던 소년 조셉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졌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시작된 회복을 이어 받아야 할 위대한 영들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 회복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 될 테야"를 외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나는 복음의 참됨을 더욱 확신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SMYC는 주님이 함께하신 대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이혜은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두려워 말라

나는
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군대를

일찍 가야겠다고 늘 생각 해 왔다.
그래서 군 입대 정보와 자격을 갖추려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평생토록 잊을 수 없고 인생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바로
SMYC이다. SMYC에서 나는 같은
목표와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을 보았다.
거기서 보게 된 청소년들의 신앙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았다. 대단했다.
훌륭했다. 참으로 거룩했다. 해의
왕국이라는 것, 감히 상상해 보자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행복했다. 그 안에서 영을
느꼈고, 또한 이러한 느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하루
빨리 그러한 세상을 만나고 싶었다.
아니,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SMYC 기간 동안 최순환 장로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두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혼보다도, 군대보다도,
교육보다도, 직업보다도 선교 사업을
먼저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힐라맨의 용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의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감독님과
집견을 했고,

추천서를 보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
온다면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도,
그 영혼에게도, 주님에게도 머무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이사야서 43:1~2).
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읽으며 선교 사업에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조영 형제, 광주 스테이크



새로운 성전 회장단

한국 서울 성전의 새로운 성전 회장단이 조직되었다. 전임 성전 회장단은 명예롭게 부름을 완수한 후 새로운 회장단에게 바통을 넘겼다. 특히 전종철 형제는 교회 본부의 요청에 따라 임기보다 일 년 더 봉사하면서 총 4년이라는 시간을 성전 회장으로 일했다. 새로운 성전 회장으로는 송평중 형제가 부름 받았고, 홍무광 형제와 손승주 형제가 각각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송평중 회장의 부인인 양계영 자매는 메이트론으로 두 보좌의 부인인 차미례 자매와 박남순 자매는 메이트론 보조로 봉사하게 되었다.

성 전 회장으로 부름 받은 송평중 회장은 성전과 인연이 깊다. 교회의 초기 회원인 그는 성전이 건립된 1987년부터 의식 봉사자로 매주 목요일마다 성전을 방문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당시 송 회장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종료 후에도 잔업이 많은 은행의 특성상 매주 한 번씩 일찍 퇴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목요일이면 5시에 꼬박꼬박 퇴근했고, 나중에는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송 회장의 퇴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송평중 회장은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소망을 갖는다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송평중 회장은 오랜 기도 끝에 성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첫째는 성전 참여자들이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의식을 절차에 맞게 서두르지 말고 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전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짓자는 것이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을 행할 때도 시간을 정확히 지키되 서두르지 말고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서로를 향해 짓는 조용한 미소는 우리의 영을

더욱 고양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송평중 회장은 성전은 곧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성전 회장이 할 일은 성전 의식이 잘 집행되고 참여한 회원들이 행복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성전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고 온 옷과 신발을 의식을 위해 벗을 때 세상의 짐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두 보좌 홍무광 회장과 손승주 회장은 신앙적인 면으로나 경험적인 면으로나 송평중 회장에게 가장 큰 조력자들이다. 특히 홍무광 회장과 송평중 회장의 인연은 남다르다. 홍무광 회장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송평중 회장이 바로 그 보좌로 6년 동안 함께 일한 것이다. 송평중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당시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던 홍무광 회장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그분께서 제 보좌로 일하시게 되었는데, 이 또한 우리 교회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부름에 기꺼이 응하신 홍무광 회장님과 손승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전 회장단을 돕고 한국 서울 성전을 주님의 집으로 가꾸는 또 다른 조력자들은 다름 아닌 성전 선교사들이다.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한국 서울 성전에는 모두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성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성전 건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년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성전 의식이 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송평중 회장은 이들이 있기에 성전이 주님의 집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바야흐로 한국 서울 성전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새로운 성전 회장단은 전임 성전 회장단이 지난 3년 간 닦아놓은 굳건한 토대 위에 행복과 기쁨의 망루를 세워 모든 회원들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송평중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한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 성전을 갖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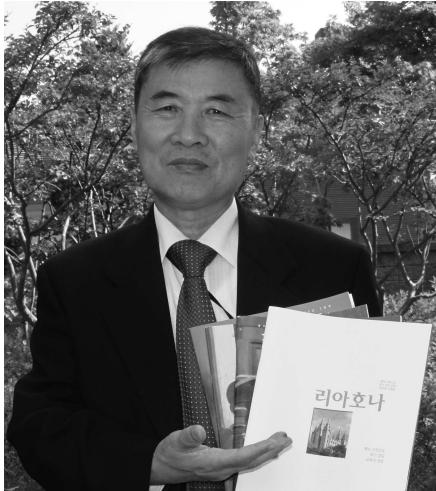
왼쪽부터: 차미례 자매, 홍무광 회장, 양계영 자매, 송평중 회장, 박남순 자매, 손승주 회장



한국 서울 성전의 성전 선교사들

한국 성도의 소리

영감 받은 잡지, 리아호나



나는 2009년 9월에 와드 리아호나 담당자로 부름 받았다. 당시 우리 와드는 활동 회원 수에 비해 리아호나 구독 부수가 저조한 편이었다. 나는 사명감을 품고 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 리아호나는 단순한 잡

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향구였고, 선지자의 영감 받은 메시지가 기록된 현대의 경전이었다. 특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조 사업을 하는데 리아호나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감독님과 의논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꾸준히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감 받은 잡지를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회원들에게 리아호나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었다. 나는 회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리아호나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만기가 된 회원을 파악해서 연장을 권유하고, 읽고 있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구독을 권유하고, 또 잘 읽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기증을 권유했다. 저활동 회원을 방문할 때도 나는 꼭 리아호나를 들고 갔다. 그렇게 리아호나를 전달받은 저활동 회원 중 상당수가 와드 대회에 참석했다. 기존 회원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족들마다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회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일 년 만에 우리 와드의 리아호나 구독 부수는 세 배 정도 늘어났다.

나는 리아호나를 읽으며 매일 꾸준히 복음 메시지를 접할 때 우리의 영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리아호나를 통해 현대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부름에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

김희영 형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침례의 물가에서

첫 걸음을 내딛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후에도 우리 부부는 일에 치중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점점 불신과 불화에 젖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이 물에 젖은 한지 처럼 찢어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아파트

현관에 붙은 무료 영어 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뻔히 선교 사업인 줄 알면서도 나는 이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몰몬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교회가 궁금하기도 했다.

나는 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선교사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수개월 쯤 접어들면서 점차 영어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나는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토론하게 되었다. 전세에 대한 매우 새로운 이야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위에 따라 보상받고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 등이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선교사들의 권유에 따라 나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밤새 읽기도 했다. 교회에도 참석했다. 교회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

드디어 침례를 받았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침례라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성신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권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내심 걱정했던 남편도 쉽게 승낙해 주었고, 침례식에도 함께 참석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우리 가족도 바뀌었다.

현재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도 교회에 참석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듯이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의 방법대로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참된 복음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김정은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희망을 노래하는 파랑새들

지난 2010년 10월 22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 아트홀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노래의 주인공은 광주의 중등 특수 학급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파랑새 합창단'이었다. 이날은 '파랑새'의 창단 기념 첫 공연이었다.

광주시의 첫 장애아 합창단인 '파랑새'는 한 자매의 작은 결심으로 시작되었다. 광주 스테이크의 조이순 자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재 운암중학교 특수학급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이순 자매는 "그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창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

파랑새 합창단은 2010년 6월 4일 총 25명의 지적 장애 청소년들과 조이순 자매를 포함한 6명의 특수교육 교사들과 함께 창단되었다. 단원들은 모두 광주시 국/공립 일반 중학교 내의 특수학급 반원들이었다. 합창단원은 지난 5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두 번씩 연습을 했고, 공연 전 마지막 일주일에는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했다. 5분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연습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파랑새 합창단의 김창식 지휘자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인이면서도 이 단원들처럼 순수하게 음악을 해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합창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조이순 자매는 아이들과 같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우리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 각자의 독특하고 순수한 개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외모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애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을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랑새 합창단의 창단이 조이순 자매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창단은 물론이고 연습과 공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족한 능력을 보기보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부모들은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공을

돌린다. 합창단원인 김하람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이 아이들은 혼자 목소리를 낼 줄만 알았지 다른 아이보다 자기 목소리를 더 작게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휘자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도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희망을 갖고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합창단에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아이는 오직 두 명뿐이었습니다. 학부모들마다 (파랑새 합창단의 창단이)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의 노력과 사랑 덕분에 파랑새 합창단의 첫 공연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 후 파랑새 합창단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참으로 뜨겁다. 인권 영화제 및 여러 곳으로부터 이미 공연 초청을 받았고 10월 31일에는 광주 5.18 학생 회관에서 열린 합창 연합제에서도 공연을 했다.

조이순 자매는 파랑새 합창단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뻐하며 봉사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전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저는 제 직업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

<정유진 기자>

알립니다



새로운 성전 및 가족 역사 시스템

교회는 조상의 정보를 준비하고 성전에 이름을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FamilySearch(패밀리 서치)'라는 새로운 성전 및 가족 역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new.familysearch.org입니다.

새로운 FamilySearch는 회원들이 각 가정이나 교회 가족 역사 센터, 또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성전 의식을 위한 가족 이름을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의 이름을 제출하는 기록 제출자는 가족 역사부에 제출하는 대신, 새로운 FamilySearch를 사용하게 되며, 가급적 모든 회원들이 PAF대신 새로운 FamilySearch를 이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새로운 FamilySearch에 직접 정보를 입력한 회원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회원일 경우 친척이 입력한 새로운 정보를 볼 수도 있으며, 가족 역사 활동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쉽게 조정하고 가족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amilySearch를 처음 시작하거나, 이용하는 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각 와드 및 지부에 부름 받은 가족 역사 상담자 또는 가족 역사 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FamilySearch를 사용하시는데 있어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003-0813-1596 또는 이메일 KoreanSupport@familysearch.org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성도들께선 1-866-280-0672로 한국 시간에 맞추어 전화하시면 한국의 지원 담당자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만약 지원 담당자 부재 시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음성 메일에 남겨주시면, 가능할 때 연락드릴 것입니다. ■



후기 성도 국제 영상 대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영상 대회'가 열립니다. 나의 물론 메시지 만들기 라는 주제로 영상물을 모집하는 이 대회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석달 동안 진행됩니다.

1. 참가 자격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13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참가자는 유튜브(www.youtube.com) 계정이 있어야 함

2. 대회 기간

- 2010년 10월 18일~2011년 1월 31일

3. 참가 방법

- 대회 기간 동안 유튜브(www.youtube.com)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 출품작을 올린다.
- 대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http://create.lds.org> 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한다.

4. 출품작 요건

- 상영 시간은 2분에서 8분 사이
- 제목은 영상이 시작하기 전 맨 처음에 들어가야 함
-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영상물이어야 함
-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함

5. 시상 내역

- 세 명의 당선자와 한 명의 인기상 선발
- 당선자에게는 각각 미화 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됨

자세한 대회 요강은 <http://lds.org/videoconte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의 내용을 번역한 PDF 파일과 참가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은 한국 교회 공식 웹사이트 ld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22명/해외 6명



고현천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민효정 자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대전 선교부



이승명 장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정립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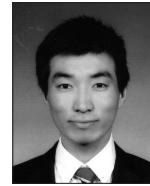
김가영 자매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
대전 선교부



박영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이용혁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정재호 장로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부산 선교부



김병우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서울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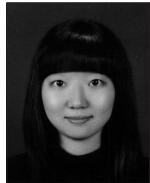
배수현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선교부



이재혁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선교부



조한준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김슬기 자매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템플 스퀘어



배준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이종훈 장로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부산 선교부



진물몬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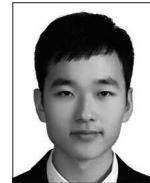
김옥태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안동우 장로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후쿠오카 선교부



임진숙 자매
수원 스테이크
울전 와드
서울 선교부



최종현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김탄휘 장로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유재국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부산 선교부



장근화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홍경실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서울 성천



문희영 자매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유준상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선교부



민보람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윤지윤 장로
인천 스테이크
연수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강릉 지방부 지방부 회장: 신기현(전임: 박창원)
동해 지부 지부 회장: 최지영(전임: 신기현)
속초 지부 지부 회장: Elder Dunnaway, Lohan Mark(전임: 심종우)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지부 회장: 석동진(전임: 이정복)

마산 스테이크

밀양 지부 지부 회장: 정영신(전임: 한기현)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지부 회장: 한성재(전임: 박장규)
대신 지부 지부 회장: 김경수 장로(전임: 강동희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방화 와드 감독: 김재일(전임: 유병철)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감독: 이주형(전임: 조현석)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감독: 윤희영(전임: 라승천)